금주 법구

사랑스런 예쁜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법구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8월 22일 수요일(주간) 제331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통일기금 모금운동 전개

"오늘 남과 북의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통일을 기원하고 서원하며 구체적 실천행의 하나로 통일기금을 모으고자 합니다"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된 8·15법회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26개 종단과 좋은 벗들, 평불협 등 17개 교계단체가 통일기금 모금 선포식을 갖고 전국사찰에 통일 불전함 설치와 통일저금통 보급을 통한 통일기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이 즉석에서 통일 불전함에 통일기금을 기탁했다.

500여명의 참가불자들도 통일저금통을 받아갔다. 불자들이 매일 통일저금통에 채워가는 통일기금은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사찰마다 놓일 통일 불전함에 쌓이는 기금은 통일이후 북한지역 60여개 사찰의 보수와 340여 폐사지 복원을 위해서 쓰여질 계획이다.

개신교 천주교 종단과 단체들은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종단 및 교회, 단체별로 10~100억원의 통일기금을 적립해 통일이후 선교와 폐 교회 복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종교와 비교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교계의 통일기금 모금운동은 각 종단과 불교 사회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로 평가된다.

통일기금 모금운동은 통일불사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선행돼야 하는 일이다. 재정적인 기반이 확충될 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남북 통일불사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불교 전 종단과 전국사찰, 그리고 각급 단체에서 '통일기금 모금운동'이 확산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종단 및 사찰, 단체별로 실질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실업인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화합과 상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불자들이 남북분단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할때 통일정토의 세계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을 유념해 우리불자들도 통일을 위해 벽돌 한장 놓는다는 생각으로 통일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겠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장 군 죽 비

◇불교 출·재가 단체 '비폭력 평화 실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자비의 종교에서 어쩌다 이런 모임까지 만들게 됐을까. (3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A급 전범들 위패에 큰절. '가미가제' 총리로 이름 바꾸는게 좋을 듯. (8면)

◇종교간의 벽허문 어린이 '숲 속의 학교'. 역시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22면)

◇북한산 관통 도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행환경도 크게 해칠 듯. '안 돼'라는 말은 이런 때 쓰라고 생겼다. (23면)

건봉사 망실토지 7백만평 찾았다

봉명학교 건립 등 옛 대가람 복원 '본격화'

강원도 고성 건봉사(주지 영도)가 9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700여만평의 망실토지를 되찾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특히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군부대가 이달 중으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져 건봉사는 봉명학교를 건립하는 등 옛 대본산의 모습을 되찾는 복원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끈다.

건봉사가 되찾은 망실토지는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7번지, 거진읍 탑현리 산1번지~4번지 일대 임야 500만평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563번지 일대 임야·대지·전답 200여만평이다.

지난 93년 사찰 주변 냉천리와 탑현리 일대 500여만평의 임야가 고성군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땅(지적 미복구 토지)임을 확인한 건봉사는 98년 4월 고성군에 '지적 미복구 토지의 지적복구'를 요청하고, 그 해 7월 지적복구가 이뤄지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송을 제기, 99년 1월 소유권 인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토지는 건봉사 법당을 중심으로 사방 10리에 해당되는 규모로 현재 건봉사 소유로 등기를 마친 상태다.

●건봉사 망실토지 회수현황

건봉사는 또 현내면 명파리 일대의 토지 200여만평에 대해서도 재경원과 국방부, 산림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건봉사 토지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건봉사는 이 땅에 대해서도 조만간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토지환수작업을 주도해 온 건봉사 신도 배선희씨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지은 <건봉사 본말사지기>와 <세조실록>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건봉사 사유임야도" 등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과거 건봉사가 1천여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지적 복구가 되지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환수작업을 벌여 대본산의 위상을 되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봉사의 한 관계자는 "토지 환수를 계기로 건봉사는 교육 및 호국도량으로서의 기틀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봉사는 신라 때 아도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당시 최초로 염불만일회를 개최하고, 임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한 호국도량이자 일제시대 민족사상 계몽교육의 산실이었던 봉명학교가 세워졌던 선교양종의 대본산이었다. 그러나 6·25때 건물이 모두 전소됐으며 민통선에 묶여 있다가 89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비구니 수계산림 10월 19일 순천 송광사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제21회 단일계단 비구니 수계산림과 제9회 식차마나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10월 19일 열리는 제21회 단일계단 비구니 수계산림과 10월 25일 제9회 식차마나계 수계산림을 순천 송광사에서 개최한다.

비구니계와 식차마나계 수계산림 지원자는 수계지원서 등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교구본사와 총무원 교무부에 접수해야 한다.

비구니계의 대상은 1997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식차마나니이다. 김원우 기자

◇광복 56주년을 맞아 15일 종단협 회장 정대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봉행된 조국통일기원 8·15동시법회에서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이 통일기원 축원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서울 조계사-평양 광법사 8·15 동시법회

"통일 보살 되겠다" 남북불자 서원

남과 북의 불자들이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8·15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행에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다 해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서원했다.

광복 56주년을 맞아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동시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6개 종단 대표와 신도대표, 민주당 한화갑의원,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 등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통일기원 타종, 헌화, 홍파스님(종단협 사무총장)의 축원, 정련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의 대회사, 혜초스님(태고종총무원장)과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의 남북불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의 민족화합불자선언, 지하스님(조계종 중회의장)의 남북공동발원문 낭독(본지 330호 4면 참조), 청년 학생들의 통일순례단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불자들이 여래의 크나큰 대비심을 갖고 겨레의 평화와 화합에 일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겨레 모두를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것이다"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하고 화합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실천궁행하자"고 말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오늘 남북불교도가 함께 개최하는 동시법회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통일을 발원하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며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체돼 있으나 반드시 새로운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평양 광법사에서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방북한 남한불교대표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봉행됐다.

김원우 기자

"日 반성않고 있다"

정대 스님, 8·15법회서 규탄

"14일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한 것을 보니 지금도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정치인들로 안된다. 전 불자들이 일본에 대해 성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한국불교종단협 회장 정대스님은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8·15 법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 불교적인 일본규탄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이날 개최된 종단협의회 이사회에서는 11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한국불교대표단의 일본 주요종단 및 총본산 방문과 관련,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일본방문을 보류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신라 불교문화를 찾아서

8월 : 석굴암·기림사·골굴사·분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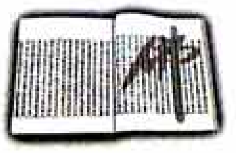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린 성보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은 한국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석굴암 내부 구조의 완벽한 조화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렀다는 천년고찰 기림사에서는 맑은 계곡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함월산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대웅전(보물 제833호), 지옥과 염라대왕을 묘사한 탱화, 와당 등 갖가지 진귀한 성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선무도로 유명한 골굴사에 들러 마애여래불 좌상(보물 제581호)을 친견합니다. 경주지역 불교문화기행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찬란했던 신라불교의 숨결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출 발: 8월25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안 내: 대명 스님(분황사 총무)
- 회 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